미세먼지 비상…전남 16개 시·군 측정소 없다

시멘트공장 있는 장성 등 미설치…여수·광양 등 6곳만 설치
함평 농도 광주 기준 확인 등 정확한 예보·통계 확보 어려워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6개 시·군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초미세먼지(PM-2.5)와 미세먼지(PM-10)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의 대기 중 농도를 파악하는 측정소가 없어 설치가 시급하다.

지난 5월에만 미세먼지 농도(일 최고값)가 환경부 분류기준 4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매우 나쁨' 수준을 웃돌았던 날이 6일, 나쁨 수준에 해당한 날도 23일로 집계되는 등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렸지만 측정소가 없는 지자체 주민들의 경우 제대로된 정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함평 주민이 자기 마을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려고 하면 광주 송정동 측정소 자료를 참고해야하는 형편이지만, 정부와 지차체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뒷짐지고 있다.

지난 31일 환경부와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전남지역 6개 시·군에 대기오염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소 17개를 설치, 운영 중이다. 측정항목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산화황 등 대기오염물질 6개 항목이다.

문제는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인체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소 숫자 자체가 적은데다 특정 지역에 몰려있다는 점이다. 전남에 설치·운영 중인 17개의 측정소는 여수 5개, 광양 4개, 순천 4개, 목포 2개, 영암 1개, 6화순 1개(국가 직접운영)로, 전남 동부권에 편중돼 있다.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파악하는 측정소가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다 보니, 측정소가 없는 담양, 장성, 함평, 나주 등 나머지 16개 시·군은 제대로 된 대기오염물질 정보에 접근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대기오염상태가 심상찮아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려고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에 접속해도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짧게는 5~10㎞, 길게는 수십㎞가 떨어진 측정소에서 생산된 자료를 참고해야한다. 함평지역의 미세먼지를 확인하려면 광주 송정동 측정소, 해남은 영암 측정소 자료를 토대로 주민들 스스로 해석해야 하는 형편이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의 한 축으로 지목되는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장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미세먼지는 발생원인이 다양하고 대기 흐름 또는 정체에 따라 지역별 농도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측정소가 없는 지자체의 경우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측정소가 없으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상태 자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데다, 측정소를 기반으로 한 예보의 정확도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 관계자는 "국가 대기질 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산단 주변이나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을 우선으로 측정소를 설치한 탓에 전남 동부권에 편중돼 있는 것"이라면서 "주민 건강보호를 위해서라도 측정소가 없는 지자체에 이른 시일 안에 측정소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전국에 설치된 319개(광주 9개)의 측정소 자료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농도 등 대기오염 상태를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 측정소 설치에는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헉!… 상상 초월 범죄들

670억대 '짝퉁 명품시계'

광주세관 밀수조직 적발…4명 송치·2명 수배

'짝퉁 명품시계' 등 670억원 어치를 밀수해 국내에 판매한 밀수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중국에서 위조 명품시계 등 670억원대 위조 상품을 밀반입해 국내에 판매한 김모(30)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광주세관은 또 중국 공급책인 한국인 조모(42)씨와 중국인 황모(30)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법무부에 입국시 통보하도록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모두 4만6504점으로, 진품일 경우 시가 670억원에 이른다. 이 중 현물 236점은 압수했다.

세관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중국 채팅사이트를 통해 위조상품 공급자를 물색해 중국 공급책 조씨 등을 통해 위조상품을 공급 받았다.

세관은 이들이 검색이 어려운 컨테이너화물을 이용해 위조상품을 국내로 들여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는 자가 사용 목적의 소량일 경우 위조상품이더라도 통관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로 들여왔지만, 지난해 2월 개정돼 소량도 통관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세관은 지난해 10월, SNS를 이용한 위조상품 판매상을 수사한 사건과 관련해 주범격인 물품 공급업자 김모(31)씨를 붙잡아 6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위조상품 판매에 사용한 휴대전화와 통장, 컴퓨터 내장하드디스크, 짝퉁 상품 236점 등을 압수했다. 또 광주지검과 공조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복원 설비인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해 압수물을 복원, 위조상품이 4만6504점임을 밝혀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인터넷·카카오톡 등에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며 "소량의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여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000억대 교비 횡령 혐의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 대법서 징역 9년 확정

1000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홍하(78) 서남대 설립자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행위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된다"며 "횡령한 교비를 다시 입금해 놓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채택 증거들을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광양과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대학 4곳의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자금 105억원 등 총 100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또 자신이 세운 대학 교직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억4000여만원을 사학연금에 내지 않고 직원 급여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318억원 상당의 매출과 98억원 상당의 매입이 있는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도 받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냉방감염병 예방해야죠 광주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지난 31일 북구청 옥상 냉각탑에서 여름철 냉방기 사용으로 감염될 수 있는 호흡기질환인 레지오넬라증 등 감염질환 예방을 위해 냉각탑 물을 수거하고 있다. 북구는 6월 말까지 백화점과 병의원 등 25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냉각탑수(水)를 수거, 분석할 계획이다. /김진수기자 jeans@

전공노 가입 광주시노조 간부 징계 무산

노조측, 인사위 회의 막아
시청 직원과 물리적 충돌도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을 주도한 광주시 노조 간부 등에 대한 시 징계위원회가 노조 측의 거센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과 시 집행부, 노조 관계자와 시 직원들 간의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31일 오후 세미나실에서 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노조 간부 등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노조 측 관계자들이 몰려와 부당 징계를 주장하며 회의 진행을 막았다.

인사위는 노조 측의 방해에 영상회의실에서 세미나실로 장소를 바꿔가며 회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결국 산회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 측과 시 관계자들간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는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인사위는 다른 일반 안건만을 처리하고 전공노 가입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일정을 잡아 논의하기로 했다.

시는 감사위 결과 수신(지난 3일) 30일 안에 인사위 회의를 열도록 한 규정에 따라 회의를 열었지만, 징계 의결은 보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 징계 결정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시 감사위원회는 전공노 가입을 주도한 시 노조 간부 등 7명에 대해 중징계, 4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전공노 가입을 도운 것으로 보이는 북구 노조원 1명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3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순천경찰, 50대 조세범 7년만에 검거 구속

1300억원대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수배돼 7년동안 도망다닌 50대 조세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은 1300여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조세범)로 정모(54)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울산 남구에서 석유 판매업을 하며 2009년 1월28일부터 7월25일까지 6개월간 부가가치세 10% 환급을 목적으로 매출입액이 총 1300여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216매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실제 석유를 사고 팔지 않았지만 허위 판매 서류를 작성, 매출액과 매입액이 1300여억원에 달했다. 정씨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인해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지 못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씨는 부산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공범들이 경찰에 고발되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계좌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 7년간 도피생활을 해오다 순천경찰에 검거됐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노점상들에 관리비 명목 7년간 2억원 뜯은 여성 2명 '딱 걸렸네'

쌍나팔

○…여수에서 시장 노점상을 상대로 주변 청소 등 관리비 명목으로 7년에 걸쳐 2억원을 뜯은 60대 여성 2명이 철창에 가게 될 위기.

○…지난 31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K(여·66)씨 등 2명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 5월 23일까지 여수시 교동의 한 금융기관 주변에서 채소 노점상을 하는 노인 등 200여명을 상대로 하루 500원~1000원씩 모두 2억원을 가로챈 혐의.

○…K씨 등은 돈을 내지 않으면 좌판 앞을 가로막고 진열된 채소를 발로 차는 등 장사를 방해하는 수법을 썼고, 피해 노점상들은 큰 액수도 아닌데다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장사를 못할까 봐 돈을 줬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경찰은 피해자들을 설득해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돈을 갈취하는 현장에서 최근 K씨를 검거.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노대지구 3층 상가건물매매
노대동 광주은행 뒷 코너자리
◈ 토 251평 , 건 431평
◈ 상가밀집지역 , 아파트 밀집지역
1층 (상가 8칸)
2층 (상가 4칸)
3층 (고급오피스텔 룸 - 13개)
◈ 보 1억6천 , 월 1,500만 (융 14억)
▣ 매가 → 28억
010-6670-9800 010-7384-7800

(주)대신경매 법률경매 (특수물건 추천)
▣ 동구 동명동 (8층상가 오피스텔)
→ (토 211평 , 건 606평)
→ 요양병원 추천 , 주차 완비 , 4차선 도로 접
→ 법원,조대 부근, 임대걱정 없음
▣ 감정가 19억 5천 → 최저가 13억 7천
▣ 북구 운암동 (5층 상가 건물)
→ 토 66평, 건 194평
→ 지하(음식점) 1층~3층 (전기업체) 4~5층(사무실)
→ 운암동 공구의거리, 광고효과좋음
▣ 감정가 7억4천6백 → 최저가 5억9천7백
▣ 나주 경현동 (3층 상가 건물)
→ (토 450평 ,건 627평)
→ 지하 (뷔페) 1층~3층 연수원
→ 금성산 내위치 , 관광객 많음
▣ 감정가 30억 → 최저가 7억
▣ 북구 매곡동 (4층 상가 상가건물)
→ (토 223평 , 건 381평)
→ 1층 (식당) 2층~3층 (학원) 4층 (사무실)
→ 주변 아파트 단지 , 4~5m 진입로 , 주차완비
▣ 감정가 12억 → 최저가 8억5천
▣ 서구 화정동 (몸 나이트)
→ 토 800평 ,건 2567평
→ 광천 터미널 앞 , 나이트 운영
▣ 감정가 140억 → 최저가 50억
▣ 남구 주월동 (5층 상가건물)
→ 토 103평 ,건 380평
→ 1층 (사무실) 2층~5층 (학원,사무실)
→ 재석초등학교 부근, 아파트,상가 밀집지역
▣ 감정가 7억9천6백 → 최저가 5억5천7백
062-511-7800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실전 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
▣ 매주 수요일 (오전)
▣ 입찰부터 임대 ,매매, 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 경매 실전 교육 ☆
바로 실전으로 수익창출 하실분 !!
특수물건 , 유치권 , 가장임차인, 경매입찰, 등
실제 경험 ,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 합니다.
(주) 대신경매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있으신분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분 환영합니다.
010-6670-9800